



PET용기업계



김 태 길
(사)한국PET용기협회
전무이사

대체수요 발굴 등 적정공급

지난해 우리 PET용기업계는 주된 용기로 사용되는 청량음료병의 수요는 정체된 반면 먹는샘물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생수병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5%증가된 96,800여톤의 생산이 추정됩니다. 이러한 증가율을 PET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타재질의 용기를 대체하는 수요와 용도개발에 의한 신규 수요가 많았던 예년의 증가율에 비하여 볼 때 미흡한 실정입니다.

PET용기는 기호음료의 용기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심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부나 경제전문기관의 경기 예측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에 안도하며서 과잉생산체계를 적정공급체계로 전환시키고, 대체수요를 계속 발굴하면서 용기의 디자인과 용량을 수요지향적으로 개발하여 2002년은 PET용기의 수요가 100,000톤을 상회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PET용기 재활용업계 역시 지난해는 매우 힘든 한해였습니다. 원료가 되는 폐PET병 구입가격은 예전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제품 판매가격과 주문물량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국내에 재활용 업체가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고 또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중국 재생섬유업계의 불황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재생업계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용도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는 2003년부터 실시예정인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앞서 폐PET용기의 자발적 협약을 조속히 추진하여 원료의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체계를 재정립하여야 되겠습니다. ☐